

Vol. 46

December.
2022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이육열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2
홈 페이지 www.ghf.or.kr

경북행복 BRIEF



CONTENTS

01.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권용신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김형모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덕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2.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평가

남영우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03.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 평가

안교철 |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01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권용신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덕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연구배경 및 추진방향

- ▣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문제는 종사자의 사기저하, 인권침해, 높은 이직률,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 지역별/시설종류 간 불균형과 격차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거주시설과 거주인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거주인의 삶의 저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복리후생, 감정노동, 일가정양립에 관한 운영 실태 및 욕구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였음.

2. 사회복지거주시설의 근로환경 현황

- ◎ 복리후생, 일가정 양립 및 감정노동에 관한 제도적 관심 부족 : 경상북도 제도적 관심 제고 필요
- ◎ 경상북도 23개 시·군 간 편차 존재 : 경북도 내 조례 제정이 미비하거나 조례 보장범위와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거나 취약한 지자체에 관한 조례 제·개정 추진 필요
- ◎ 사회복지거주시설의 특성 고려 :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 일·가정양립, 감정노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설계 필요
- ◎ 종사자 권리와 복지전반에 관한 포괄적 제도 고안 :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권리와 복지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제도와 방안 고려
- ◎ 인력배치 기준과 인건비 보장 :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각종 휴가제도, 교육연수나 건강점검과 관리, 상담치료, 일과 삶의 균형 등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교대 근무제, 보수체계 등 개선 필요

3.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내용

- ▣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구분	내용
분석대상	· 사회복지거주시설의 지역 분포 및 시설 유형을 고려한 비례층화 표본추출 실시 · 사회복지거주시설 89개소, 종사자 685명 무작위 선정 · 설문지 배부 총 685부, 회수 총 656부(95.8%), 최종분석 637부
조사기간	· 2021년 7월 24일 ~ 8월 31일

▣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조사내용

- ◎ 시설 현황 : 소재지, 운영주체, 소관부처, 시설종류
- ◎ 종사자의 일반현황 :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위, 직종, 사회복지경력, 재직기간, 보유자격증
- ◎ 종사자의 복리후생 : 시간 외 근로 및 수당 실태 등
- ◎ 종사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 거주시설 일·가정양립제도의 사용 실태 등
- ◎ 종사자의 감정노동 보호 :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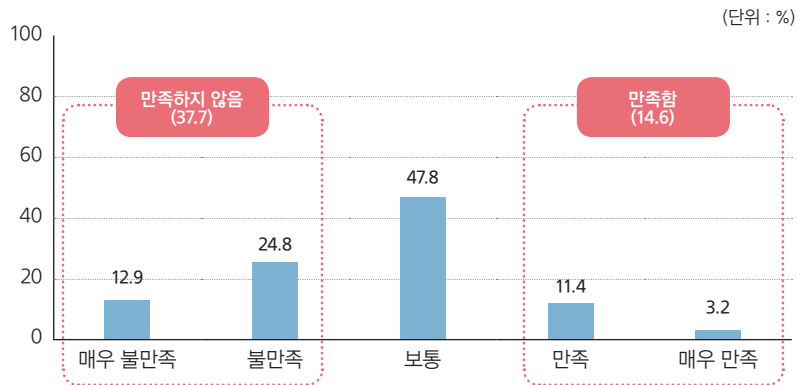
2)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분석결과

▣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남성 32.4%, 여성 67.6%), 연령(50대 36.9%, 40대 33.2%, 30대 15.4%, 60대 이상 9.3%, 20대 5.2%), 결혼상태(기혼 82.0%, 미혼 18.0%), 최종학력(2~3년제 졸업 55.9%, 4년제 대학 졸업 38.7%, 대학원 졸업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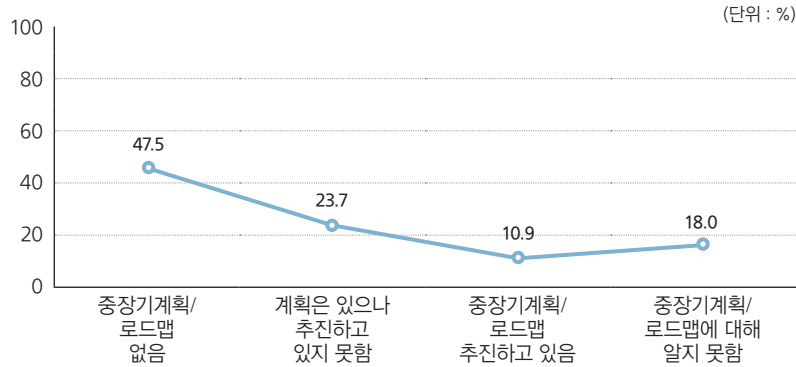
▣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복리후생

-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사용여부 : 모두 사용함 83.6%, 일부사용 16.4%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어려운 점 : 거주인 대상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 34.4%,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18.5%,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16.6%,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상황 15.9% 등
- 부양의무가 있는 종사자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 보통 47.8%, 불만족 24.8%, 매우 불만족 12.9%, 만족 11.4% 순



□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중장기 계획·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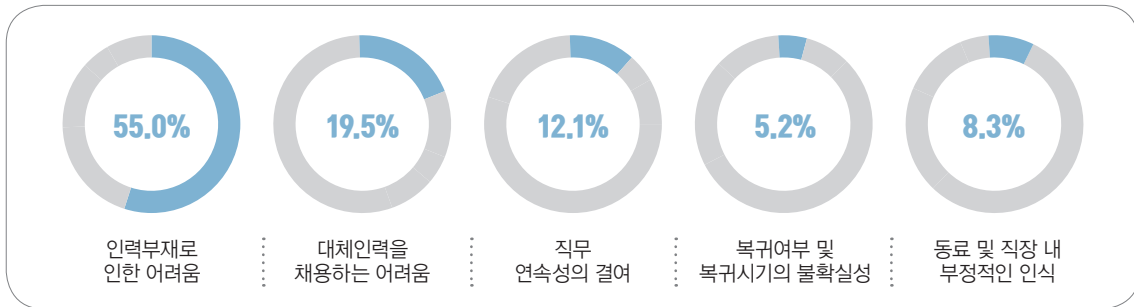
-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없음 47.5%, 계획은 있지만 실제 추진하고 있지 못함 23.7%, 중장기 계획 또는 로드맵 마련,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함 18.0%, 중장기 계획 또는 그에 근거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10.9% 순임.



▣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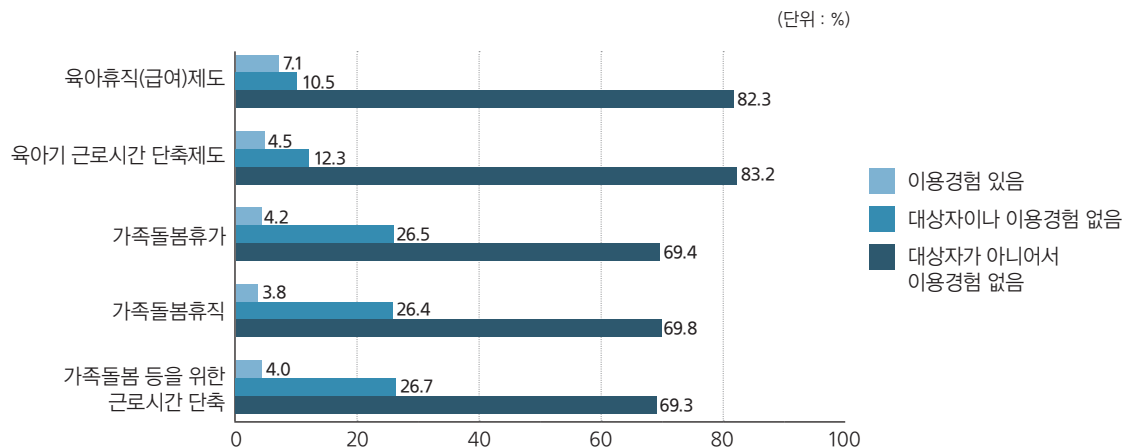
□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 인력부재로 인한 어려움 55.0%,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 19.5%, 직무 연속성의 결여 12.1%, 동료 및 직장 내 부정적인 인식 8.3%, 복귀여부 및 복귀시기의 불확실성 5.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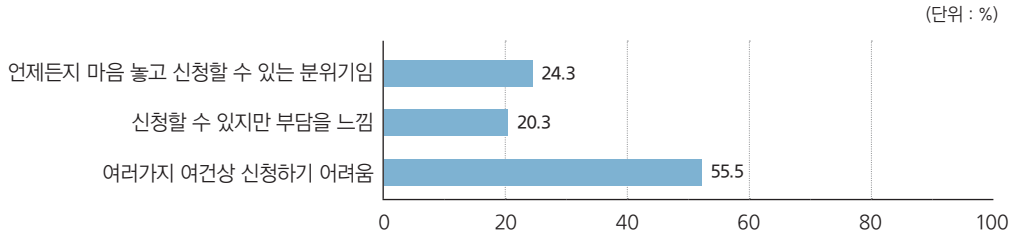


□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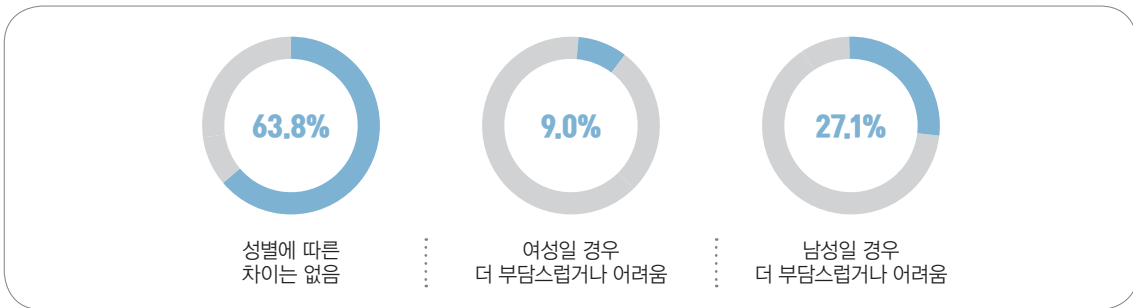
- 이용경험은 육아휴직(급여)제도 7.1%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5%, 가족돌봄휴가 4.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0% 순
- 대상자이나 이용경험 없는 제도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6.7%, 가족돌봄휴가 26.5%, 가족돌봄휴직 26.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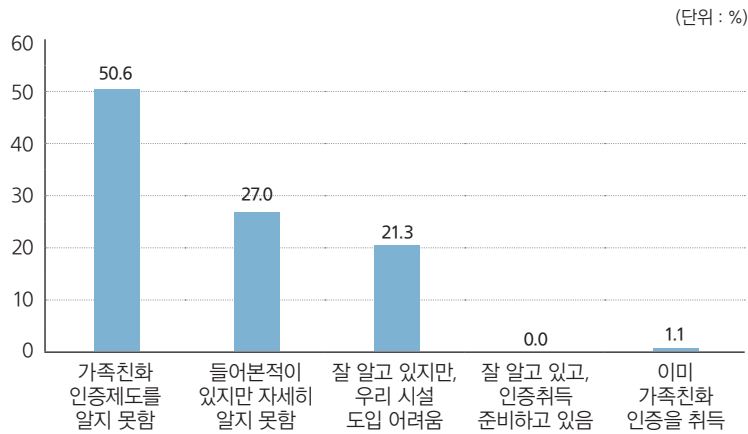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신청가능 여부 : 여러 가지 여건 상 신청하기 어려움 55.5%,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24.3%,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담을 느낌 20.3%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성별 차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음 63.8%, 남성일 경우 더 부담스럽거나 어려움 27.1%, 여성일 경우 더 부담스럽거나 어려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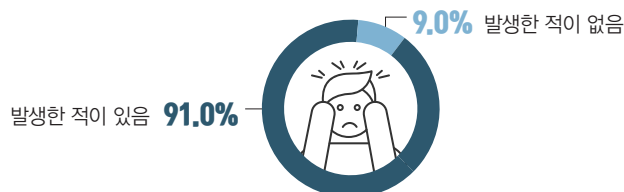


- 거주시설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 가족친화인증제도 모름 50.6%, 들어본적이 있지만 자세히 모름 27.0%, 잘 알고 있지만 우리시설 도입 어려움 21.3%, 이미 가족친화인증 취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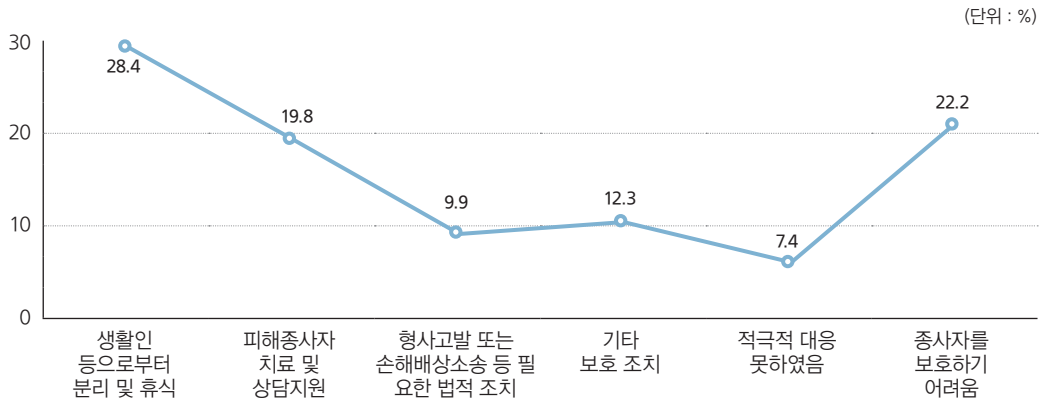


□ 종사자의 감정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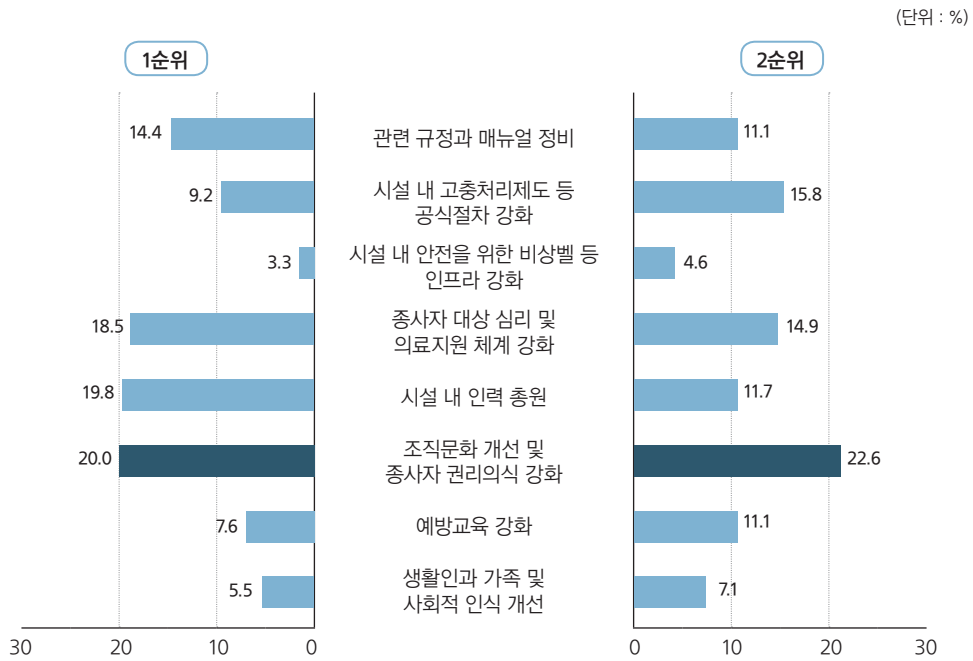
- 거주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피해 발생 여부 : 발생한 적이 있음 91.0%, 발생한 적이 없음 9.0%



- 거주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 ‘거주인 등으로부터 분리 및 휴식 보장’이 23명(28.4%)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 특성, 거주인과의 관계 및 거주인 권리보호 등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18명(22.2%), ‘피해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16명(19.8%), ‘보호 방법, 지원 기관 등을 알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6명(7.4%)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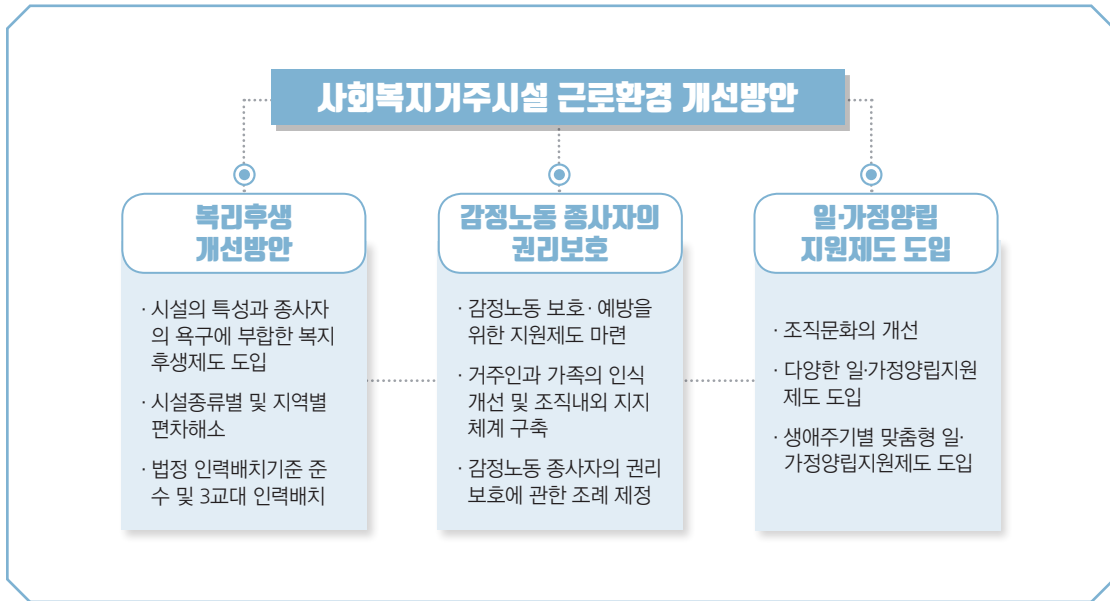
- 종사자의 감정노동 피해보호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 : 가장 높은 정책 비율은 ‘시설 내 조직문화 개선 및 종사자 권리의식 강화’로 1순위 126명(20.0%), 2순위(143명, 22.6%)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남. 3순위에 가장 높은 정책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 126명(20.0%)으로 나타남. 반면 1~3순위 모두 가장 낮은 항목은 ‘시설 내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인프라 강화’ 였음.



* 1순위 기타 1.7%, 2순위 기타 1.1%는 제외됨.

5. 정책적 제언

- ▣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위한 복리후생 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도입,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1).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김유경 외(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2020).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용, 개정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Lavee, E., & Strier, R.(2018). Social workers' emotional labour with families in poverty: Neoliberal fatigue?. Child & Family Social Work, 23(3), pp.504~512.

본 브리프는 경북행복재단(2021)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SPECIAL COMMENT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이관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다. 환원 당시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고 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은 매년 인건비가 인상됨에 비해 중앙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동결이 이어지는 바람에 장애인복지시설 간에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과 365일 24시간 함께하는 기관의 특성 상 종사자들의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이 다른 복지기관에 비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북행복재단의 이번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본 연구가 장애인복지시설 중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해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승택 경상북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02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평가

남영우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평가란


- ▣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의무가 법제화되었음.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
-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69, 3735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경상북도는 2014년 2월, 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결함에 따라 그해 자립재활 지원 관련 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12개 사업, 75개소에 대한 평가사업을 시작하였음.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평가 추진방향

-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평가는 실질적 성과 향상을 통한 서비스 체감도 개선·증진
- ▣ 산출(output), 성과(outcome) 중심의 수행실적 도출과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체계 역할 추진
- ▣ 평가결과 활용은 기관을 서열화하지 않고 개별 피드백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자율적 개선분위기 조성

평가목적	복지환경 변화 반영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미래지향성
평가내용	사회서비스 효과성 및 사업운영 기반 중심	지역기반 공공성
평가방법	문서중심 평가 지양	현장의견 경청 지향
평가결과	평가대상 피드백·컨설팅 지원	자율적 개선 지원

2. 경상북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고 시설이며,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그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역 자체사업임.
- ▣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목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 현재 경상북도에서 보조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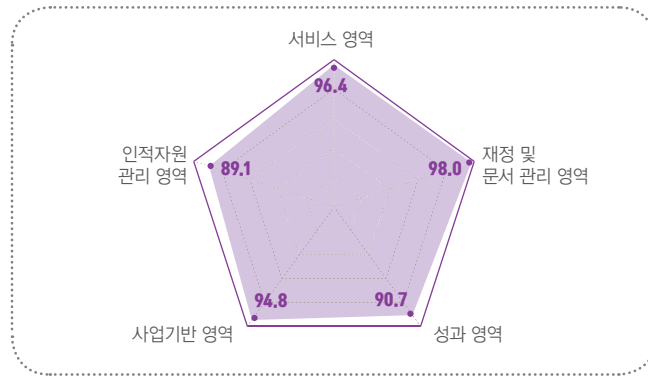
[표 1] 경상북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구분	내용
사업구분	· 경상북도 자체사업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배경 및 목적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대상	· 지역의 등록 장애인 및 인근지역 장애인
사업내용	· 주간보호를 기본으로 사회적응훈련,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량	· 40개소
예산액	· 7,029백만원(도비 1,195, 시군비 5,834)

자료 :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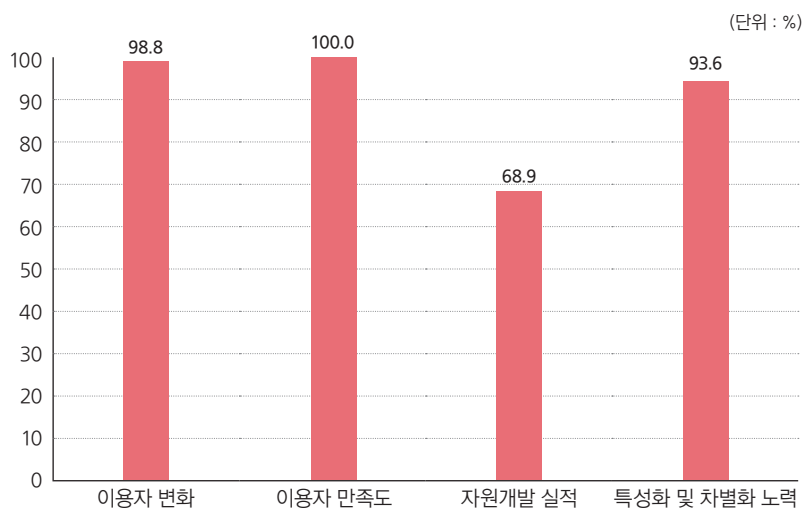
1)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평가 결과

- 경상북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평가결과, 총점 165점 만점에 평균 155.6점으로(100점 환산 기준 94.3점)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성과영역(90.7)과 사업기반영역(94.8), 재정 및 문서관리영역(98.0), 서비스 영역(96.4)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비해 인적자원관리영역(89.1)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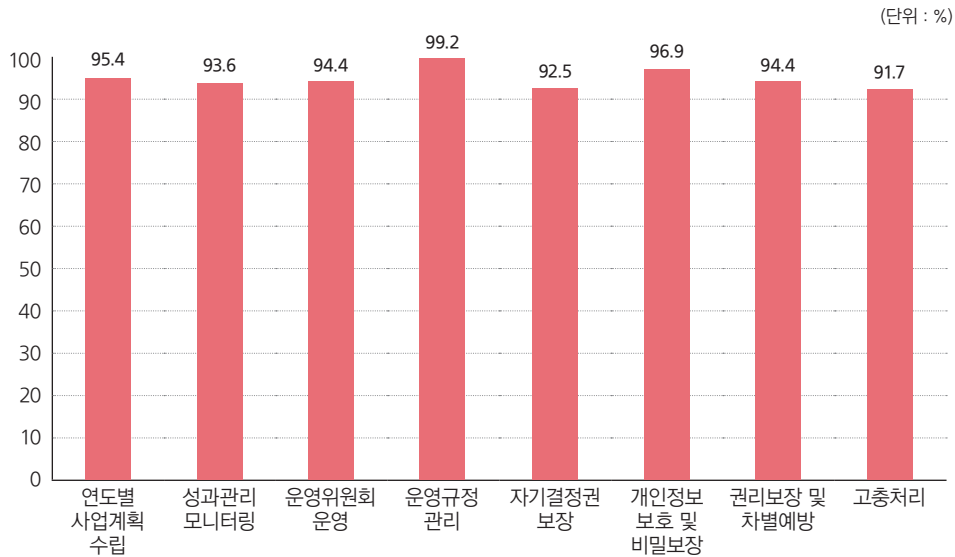
[그림 1] 영역별 평가결과

- 성과영역은 결과(outcome) 및 산출(output) 2개 항목, 4개 지표, 총점 25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22.7점이었으며, “우수”(90.7/100점)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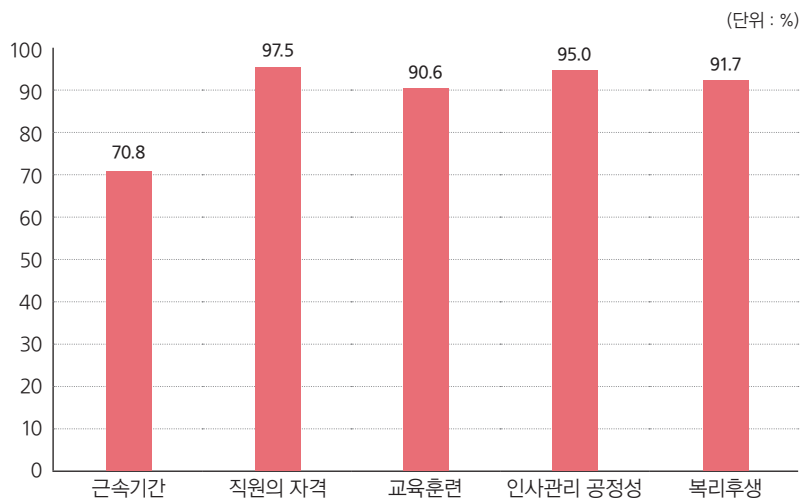
[그림 2] 성과영역 평가결과

- 사업기반영역은 사업계획 및 과정 관리, 운영기반 구축, 이용자 권리보장 등 3개 항목, 8개 지표, 총점 45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42.7점이었으며, “우수”(94.8점/100점)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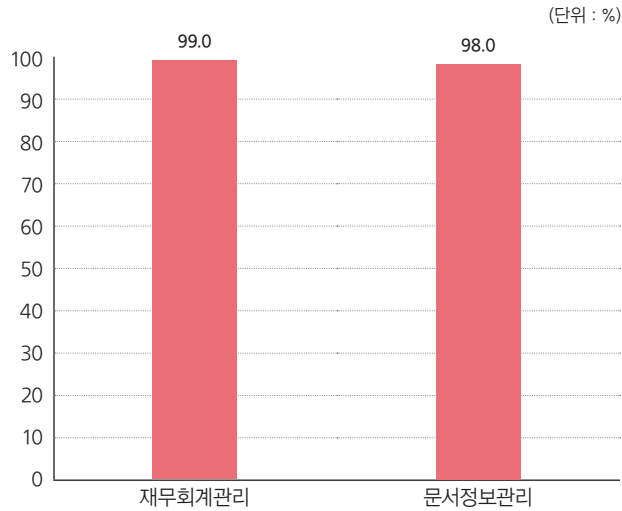
[그림 3] 사업기반영역 평가결과

- 인적자원관리영역은 충분성, 전문성, 인사복무관리 등 3개 영역, 5개 지표, 25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22.3점으로 “양호”(89.1/100점)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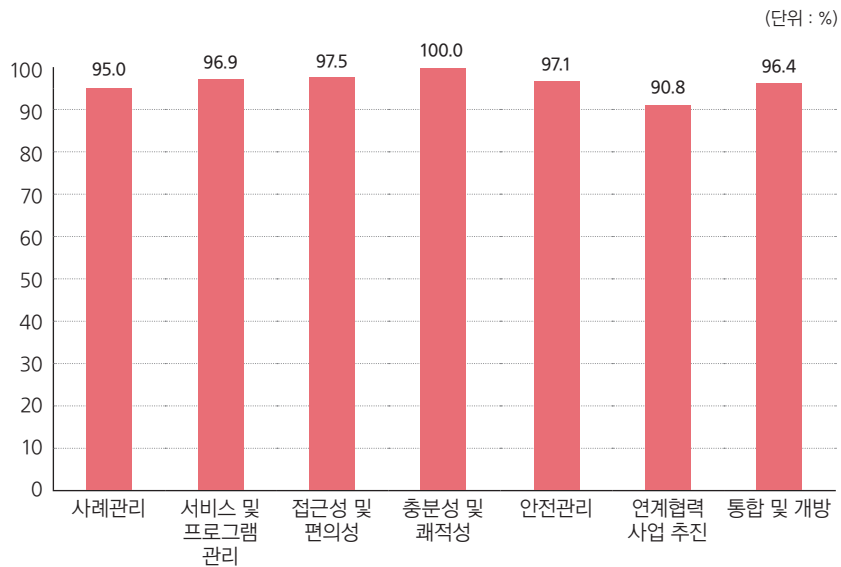
[그림 4] 인적자원관리영역 평가결과

- 재정 및 문서관리영역은 법규준수·문서관리 등 1개 영역, 2개 지표, 3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29.4점이었으며, “우수”(98.0점/100점)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 5] 재정 및 문서관리영역 평가결과

- 서비스영역은 서비스과정, 서비스환경, 지역사회관계 등 3개 항목, 7개 지표, 총점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38.6점이었으며, “우수”(96.4/100점)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 6] 서비스영역 평가결과

2) 개선과제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사업추진 지침 상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처음부터 독립시설로 신고·운영한 곳을 제외한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자립지원시설의 부속시설에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운영 성격의 차이는 인력 활용, 서비스 제공, 자원개발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단독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통해 독립시설로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본래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운영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지침 마련

- 이용 장애인의 상태 유지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화와 이를 위한 성과목표 중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매뉴얼 또는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의 표준적·객관적 성과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을 유형화하고, 이용자 개인별 사례관리체계의 표준화·전문화를 위한 매뉴얼 또는 지침의 개발과 정기적·지속적 직원교육 지원이 필요함.

* 참고문헌

경상북도. (2022).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본 브리프는 경북행복재단(2022)에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평가'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SPECIAL COMMENT



경북행복재단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생기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이용인들의 의뢰가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장애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용인들을 보호해야하는 종사자들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종사자분들이 평가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과중한 업무를 잘 파악하시어 종사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길 바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처우가 개선되어 모든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꿈의 직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중혜 경북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03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 평가

안교철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1. 개요

▣ 평가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함.
- 경상북도는 2014년 2월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도입'을 의결함.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19년 12월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으로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실시를 권고함.

▣ 사업특성¹⁾

- 사업구분 : 경상북도 자체사업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대한 법률 등
- 도입배경 및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 및 설비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교육 등
- 예산액(2022년 본예산 기준)
 - 광역센터 : 190백만원(도비), 시군센터: 2,963백만원(도비 592, 시군비 2,371)
 - 시민촉진단 : 105백만원(도비)

▣ 평가대상 현황

- 사업량
 - 25개소(광역센터 1개소, 시군센터 23개소, 시민촉진단 1개소)

1)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광역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안제시,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적정설치 자문 및 기술개발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안전감시단)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 시설주관(시·군 등)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 사업비

구분	사업량	예산액(2022)	사업주체
광역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1개소	190백만원(도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23개소	2,963백만원 (도비 592, 시군비 2,371) *센터당 1억1천 ~ 2억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안전감시단)	1개소	105백만원(도비)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계	25개소	3,25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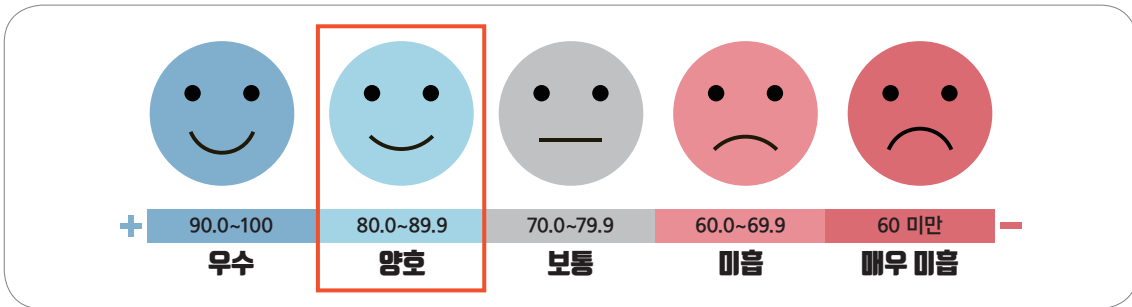
□ 평가대상 현황

권역별	시설명	지역	인력현황
도협회	경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안동	3명
동부권	경북포항시장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포항	4명
	경북영덕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영덕	2명
	경북울릉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울릉	2명
	경북경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경주	3명
	경북울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울진	2명
서부권	경북구미시장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구미	4명
	경북김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김천	3명
	경북문경시장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문경	3명
	경북예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예천	2명
	경북상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상주	2명
남부권	경북칠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칠곡	2명
	경북성주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성주	2명
	경북고령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고령	2명
	경북청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청도	2명
	경북경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경산	2명
	경북영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영천	2명
북부권	경북영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영주	2명
	경북봉화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봉화	2명
	경북의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의성	2명
	경북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영양	2명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군위	2명
	경북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청송	2명
	경북안동시장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안동	3명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안전감시단)		구미	2명

2.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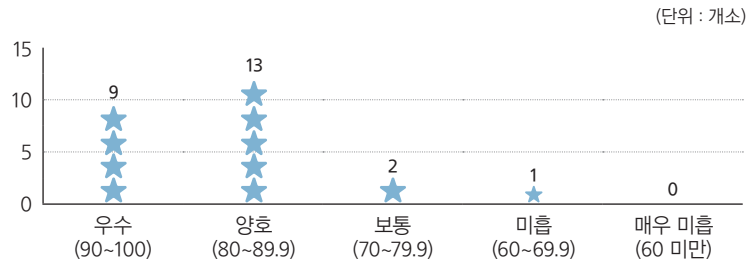
▣ 종합평가 결과 “양호(86.6점)” 수준으로 평가됨.

- 평가결과, 23개 시군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6.6점으로 “양호” 수준으로 평가됨. 광역센터와 시민 촉진단은 100점 만점에 각각 89점으로 역시 “양호” 수준으로 평가됨.



□ 기관별 평가등급판정 결과, “우수” 등급 9개소, “양호” 등급 13개소, “보통” 등급 2개소, “미흡” 등급 1개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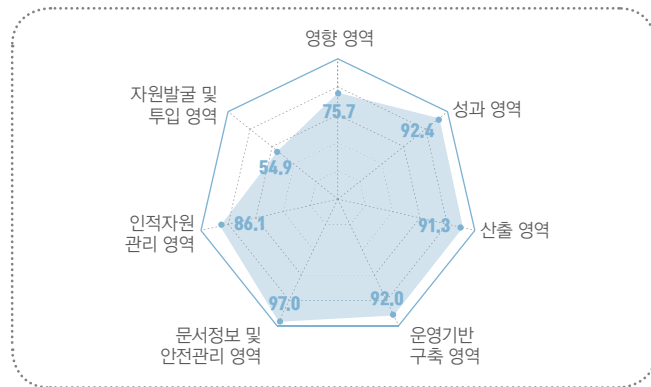
- 평가 최고/최저 점수: 최고 95점, 최저 68점



▣ 영역별 평가결과 및 등급현황

영역	배점기준	전체평균	100점 환산	평가등급
영향영역	12	9.1	75.7	보통
성과영역	8	16.5	92.4	우수
산출영역	16	14.6	91.3	우수
운영기반 구축 영역	20	18.4	92.0	우수
문서정보 및 안전관리 영역	16	15.5	97.0	우수
인적자원관리 영역	20	17.2	86.1	양호
자원발굴 및 투입 영역	8	4.4	54.9	매우미흡

-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성과 영역(92.4)과 산출 영역(91.3), 운영기반 구축 영역(92.0), 문서정보 및 안전관리 영역(97.0)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비해 인적자원관리 영역(86.1)은 양호하나 영향 영역(75.7)은 보통, 자원 발굴 및 투입 영역(54.9)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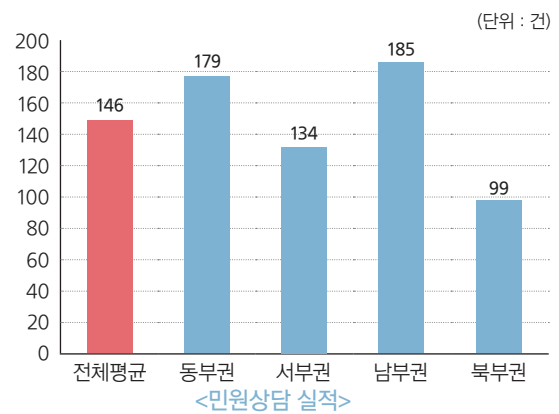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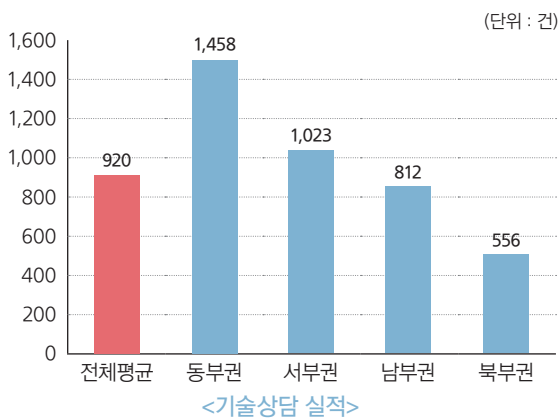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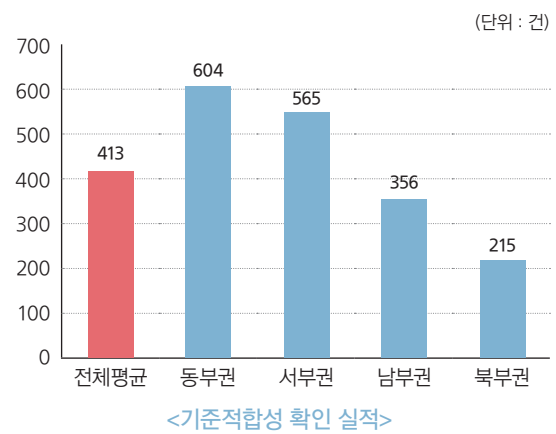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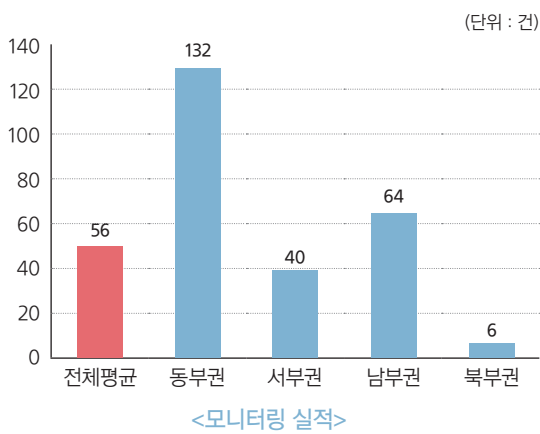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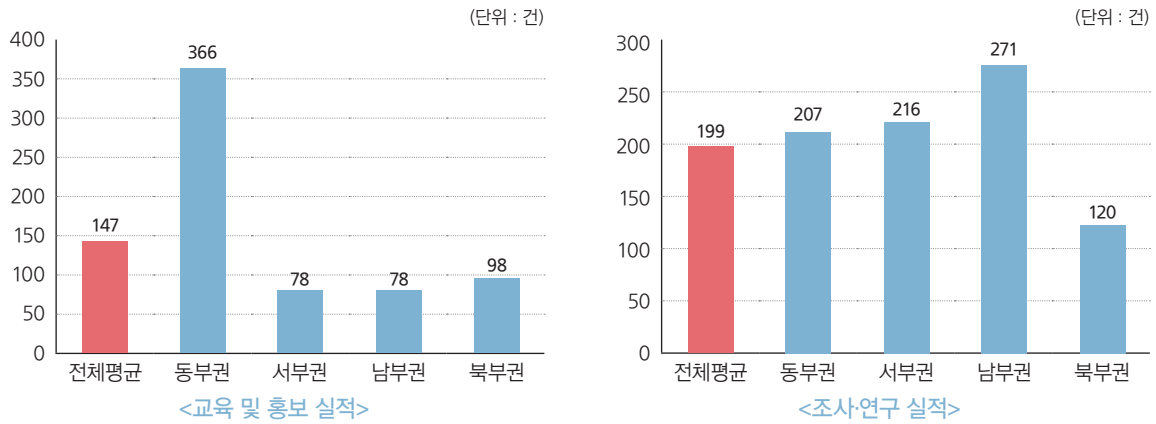
[그림 1] 영역별 평가결과

3.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사업 실적

▣ 각 시군센터 사업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과 관련된 3년간(2019~2021)의 권역별 시군센터 평균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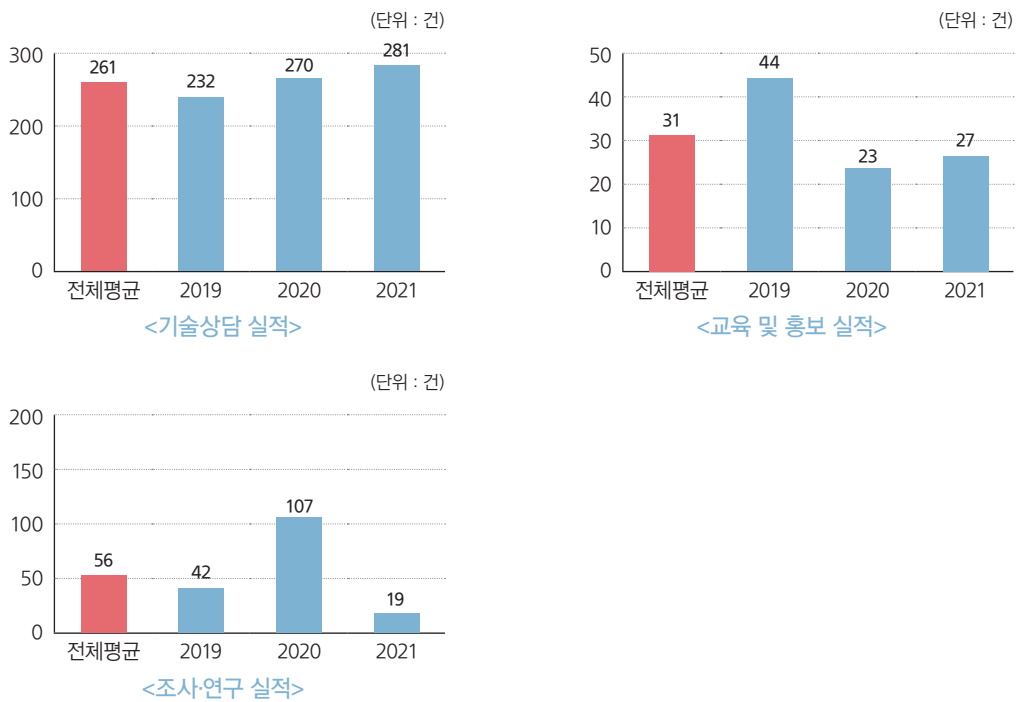


[그림 2] 각 시군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 관련 실적(2019~2021)

- 모니터링 : 전체평균 56건, 동부권은 132건, 서부권 40건, 남부권 64건, 북부권 6건
- 기준접합성 확인 : 전체평균 413건, 동부권은 604건, 서부권 565건, 남부권 356건, 북부권 215건
- 기술상담 : 전체평균 920건, 동부권은 1,458건, 서부권 1,023건, 남부권 812건, 북부권 556건
- 민원상담 : 전체평균 146건, 동부권은 179건, 서부권 134건, 남부권 185건, 북부권 99건
- 교육 및 홍보 : 전체평균 147건, 동부권은 366건, 서부권 78건, 남부권 78건, 북부권 98건
- 조사·연구 : 전체평균 199건, 동부권은 207건, 서부권 216건, 남부권 271건, 북부권 120건

□ 광역센터 사업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과 관련된 3년간(2019~2021)의 광역센터 평균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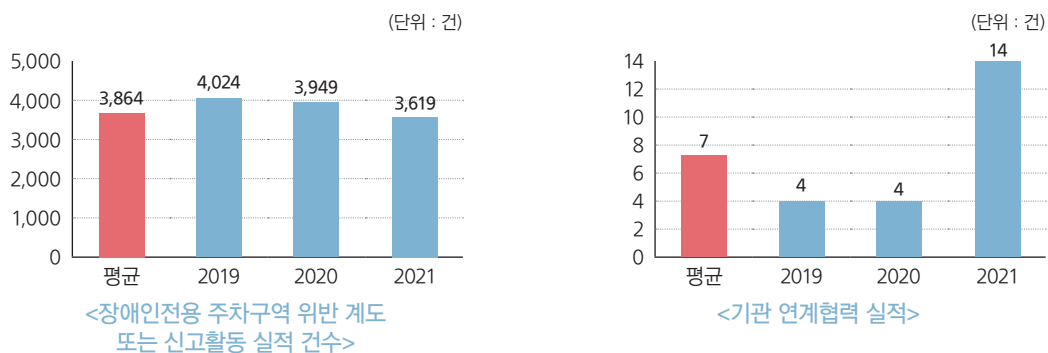


[그림 3] 광역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 관련 실적(2019~2021)

- 광역센터의 주요 기능은 기술상담,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가 있음.
- 기술상담 : 전체평균 261건, 2019년 232건, 2020년 270건, 2021년 281건
- 교육 및 홍보 : 전체평균 31건, 2019년 44건, 2020년 23건, 2021년 27건
- 조사·연구 : 전체평균 56건, 2019년 42건, 2020년 107건, 2021년 19건

▣ 시민축진단 사업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축진지원 사업과 관련된 3년간(2019~2021)의 시민축진단 평균실적



[그림 4] 시민축진단 장애인 편의시설 축진지원 사업 관련 실적(2019~2021)

- 시민축진단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계도 또는 신고활동, 기관 연계협력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 있음.
- 계도 및 신고활동 : 전체평균 3,864건, 2019년 4,024건, 2020년 3,949건, 2021년에는 3,619건
- 기관 연계협력 : 전체평균 7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14건

4. 개선과제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노력과 직원의 역량강화 필요

- 사업 수행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선요구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어야 함.
-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예산과 교육참여 여건 마련 등 직원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이 필요함.

▣ 자원 발굴 및 투입안 마련

- 지속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물적 및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 마련 필요
- 지역사회 기업,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연계협력 체계 구성
-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예산 지급으로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 부담 비중 완화 필요(일정한 사업비에 인건비 상 승분 적용 필요)
- 친취적이고 사업운영이 우수한 기관은 사업비 증액 필요

▣ 직원의 근속률 유지와 복리후생을 위한 대책 마련

- ▣ 직원의 처우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여 직원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 및 직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 현재 각 시군에서는 기준적합성 업무 확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가중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 업무의 가중은 직원의 퇴사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문헌

경상북도. (2022).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본 브리프는 경북행복재단(2022)에서 실시한 '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SPECIAL COMMENT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사업을 진단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강화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를 도입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의무화됨으로써 품질관리 차원에서 3년 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 업무에서부터 편의시설 실태조사, 적정설치 자문 및 기술개발, 대안제시, 사후 모니터링,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활동의 필요성과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의 필요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주체의 노력의 필요성을 진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경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활동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오테희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역량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p>01</p> <p>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p>02</p> <p>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 컨설팅·평가·인증 ·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p>03</p> <p>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p>04</p> <p>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



3년 연속(2020-202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